박원호/교수 · 정신대 기독교교육

이 번호에서는 왓다 스탈(Wanda J. Stahl)의 지식 형성의 중심으로서의 공동체를 생각하고자 한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교육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인식론이 중심이다.

인식론이란 ‘있다는 것 무엇이나’에 대해 연구하는 철학적 분야이다. 이는 일반 교육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에서도 핵심적인 분야이다.

어떤 인식론을 갖느냐에 따라서 격으로 드러나는 교육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마음이 백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육과 학습자와 마음은 진리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육은 정 반대의 모습을 띠게 된다. 전자는 전달 중심의 교육을 주로 한다면 후자는 교육이 교육을 주로 한다. 기독교교육의 대부분의 이론에 있어서도 인식론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성서적 인식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교육 정신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 오늘날 일반 교육 및 종교교육의 근본 문제는 인식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머에 따르면 오늘날의 잘못된 교육은 바로 잘못된 인식론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교육에 두가지 종류의 인식론의 원천을 말한다. 하나는 호기심과 통제(Curiosity and Control)요 다른 하나는 사랑(Love)이다.

오늘날 주된 동기는 전자이다. 호기심과 통제에서 출발한 지식은 객관적이고 비도덕적, 무도덕적이며 힘을 갖는 것을 중심 과제로 생각하기에 그 결과는 개인주의,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 특히 영성의 전통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다른 동기를 주장한다. 사랑에서 시작된 지식은 결과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나 또는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의미의 존경, 대화,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Knowing is Loving)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바른 인식론적인 태도를 호소한다.

이번호의 종교교육에서 스탈은 서구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개인을 지식 형성의 중심으로 두는 사실을 지적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은 객관성, 추상, 그리고 보편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감정, 홍
미, 문화적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주관은 피하여야 하며 절차히 개인주의적 인식론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백인, 중류, 개신교, 미국의 교육과 목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오늘날 여성학자들의 인식론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여성학자들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의 지식을 주장한다. 따라서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긴다. 사람들의 종교과 계급, 성별이 아니라 인격, 감정이 지식의 내용과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이러한 차별성과 다양성을 무시했다.

다음으로 여성학자들은 지식 형성에 있어서 관계성(relationality)을 중시한다. 오늘날 지식의 주체의 전적인 거리들은 사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식은 메일의 복잡한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발견되는 추상적 설계가 아니라 메일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구성된다고 믿는다.

세 번째로 여성학자들은 여성 중심의 지식 형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코드(Code)와 같은 여성학자들은 구체성, 주관성, 관계성이 마치 여성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특징으로 주장하는 여성 인식론을 비판한다. 이러한 인식론들은 자신의 정체를 개발하고 영속화함에 있어서 주된 문화의 역할을 맡지기도, 질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여성 인식론은 여성이라는 태두리에 갇혀서는 안된다.

특히 여성학자들의 인식론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부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 이론과 실천, 논리와 감정을 분리하는 전통적 인식론과는 차이가 있다. 주관성을 존중하는 인식론은 물론 객관성을 무시하지는 않으며 대신 다양성, 다양성, 구체성, 변화, 그리고 관계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인식론은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체계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버리고 신앙이 다양하고 완전한 관점에서 대단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은 바로 이를 증언한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고립시키신 가운데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대신 연결과 이해를 통한 사랑을 가르쳤다고. 사랑은 당연히 원칙이었으나 하나의 규칙으로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다. 인식은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제도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는 이를 거부해야했다.

코드(Code)같은 여성학자는 공동체야말로 더욱 정확한 지식의 발달에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상호 관련성을, 차이와 다양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종교이다. 요한은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 (고전 12:12-3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은유는 모든 교인들의 중요성을